

전남·경남 COP28 공동 유치 손 잡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10개 단체장 참석 오늘 여수서 유치위원회 정기총회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오전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2021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COP28을 여수와

남해 등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COP28 유치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공동유치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민·관 공동 운영 체제로 개편됐다.

전남·경남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은 이날 COP28을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이 공동 유치

하도록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COP28 유치에는 전남과 경남을 비롯해 제주, 인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COP28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남해안 남중권이 공동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5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 출범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장희국 시교육감, 양향자 국회의원, 5개구 자치구청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 출범

광주시, 올 94개 사업 7589억원 투입

1가정 1발전소·시민 햇빛발전소 추진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에 앞장 설 광주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원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113개 시민·사회단체가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결성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의회는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시, 시교육청,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관련 사업 최고 의결 기구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모으고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도시 추진단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한

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 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교통 등 6개 부문, 94개 사업에 7589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947만톤의 10.5%인 10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에너지 저장장치(ESS)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한 민간 중심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이 참여·출자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등이 추진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 공공부문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등이 소개됐다.

상무지구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환경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이 구상에 포함됐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현일 기자 cki@kwangju.co.kr

“LNG 직거래 급증...가스공사 배관망 규제 완화 시급”

민주 김경만 비례의원 토론회 개최

(주)한양이 추진중인 여수 LNG 동북아 허브 등 민간 LNG 터미널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NG의 가격 인하와 거래 활성화, 기업들의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실에서 열린 ‘LNG 직거래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LNG 수입에서 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4%에서 지난해 22.4%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의 ‘국내·외 LNG 시장 현황과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 사례 및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소흥석 한전 경영연구원 부장의 ‘LNG 도입방식 다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공동이용 현안과 개선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계속됐다. 유권홍 원광대 교수는 ‘공정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조건-TPA’,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루션 대표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분석의 문제점 및 대책’ 등 천연가스 배관망 공동이용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가교로서 LNG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LNG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입장이치를 좁히고, 선진화된 LNG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월 본격 시행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예고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중점

전남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25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업무에 돌입했으며,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3월 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 임명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4월까지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5월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을 임명해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6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제도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 본격 시행 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주민과 밀접한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활동도 전개해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은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은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